

조선일보선정 '올해의 책'



2003, 이 책들이 있어 행복했다



일러스트=이철원기자 burbuck@chosun.com

극악한 불황으로 시종했던 한 해, 출판계 최대 화두는 '개인' 이었고 '재미'로 시름을 잊고 '실용(자기계발서)'로 인생역전을 쉼하는 독서 경향이 뚜렷했다. "전반기엔 '나무', 막판엔 '해리 포터'가 서점을 먹여 살렸다"고 할 만큼 국내 저작은 저조했고, 문학의 침체 속에 인터넷 소설이 입지를 넓혔다.

'내용의 깊이'와 '읽는 맛'으로 2003년을 대표할 만한 책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인문·과학·역사·문학 등 전 분야와 국내·해외 저작물을 망라해 조선일보 Books팀이 '올해의 책' 10권을 엄선했다. 어수선한 연말,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설계를 도울 양서(良書)들을 추천한다.

과학 문외한인 여행작가가 다윈·뉴턴·아인슈타인·호킹 등의 이론을 섭렵하며 수년 간 취재해 쓴 노작(勞作)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과학에 녹아든 인류 역사와 인간미를 두루 펼쳐 보인다. 우주 탄생·생명의 진화부터 대폭발(빅뱅)·열역학·양자론·상대성이론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루면서도 유머까지 버무린 자상한 대중 과학서로 구미에서도 화제가 됐다.

'미국 vs 유럽'은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극명했던 신·구 대륙 갈등의 근저를 읽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미국 신보수파'로 불리는 저자는 평화와 번영을 신봉하는 유럽과 군사력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미국, 칸트(유럽)와 홉스(미국)에 기반한 화합하기 힘든 세계관이 '힘없는 술집주인'(유럽)과 '악한을 격멸하는 보안관'(미국)이란 현재의 위상을 결과했다고 말한다.

'퇴계와 고봉, 편지를 나누다'는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의 주역인 성리학 쌍봉(雙峯)이 교환한 서신에서 탁월한 정신적 문화유산을 인양한다. 조선 중기 지식인의 철학적 공방과 고뇌, 26세 나이 차를 초탈한 서로를 향

● 조선일보 북스팀 선정 '올해의 책' (가나다 순)

제목	지은이(출판사)	총평
거의 모든 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까치)	호기심과 탐구열, '과학'이란 창을 통해 서술한 인류 역사 검은 꽃
검은 꽃	김영하(문학동네)	100년 전 멕시코 이주 한인들이 근대적 주체로 가는 역경
게르만 신화, 바그너, 히틀러	안인희(민음사)	신화·예술·정치로 이어진 유기적 과정을 분석한 논픽션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신명직(현실문화연구)	신문·잡지 만평에 비친 알록달록한 시랑스리온 식민지 조선
미국 vs 유럽	로버트 케이건(세종서적)	미·유럽 갈등과 상이한 세계관에 대한 미국 신보수주의자의 분석
조선의 뒷골목 풍경	강명관(푸른역사)	주·색·도박·조폭 등 비(非)주류 인생의 일탈로 읽는 조선사
퇴계와 고봉, 편지를 나누다	이황·기대승(소나무)	성리학 두 거봉이 서신 왕래로 벌였던 한국 지성사 최고 논쟁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	엄홍길(이레)	정상만을 향해 가는 신악인의 열정과 무상(無常)의 진리선, 영의 경계에서 삶의 원형을 찾아 방랑하는 15세 순수 영혼
해변의 카프카	무라카미 하루키(문학사상)	현경위기를 부풀리는 조작·과장·허구·궤변에 대한 역고발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외른 롬보르(에코리브)	

'거의 모든 것의 역사' '검은 꽃' 등 10권 뽑혀 다시 읽을수록 내용의 깊이 새록새록 다가와

한 애뜻함이 그려진다.

'세분화된 인문서'는 색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읽는 유패함을 선사했다. '조선의 뒷골목 풍경'은 주사(酒邪)·도박·성추문·조직폭력 같은 '그늘'과 공상에 빠진 민초를 살린 민중의(民衆醫) 등 무명시의 일상에서 조선을 재발견했다.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는 1920~30년대 신문·잡지에 실린 만문만화(漫文漫畵)로 그 시절 경성의 세태를 스케치한다. 일제 검열을 회롱한 듯한 우회와 은유, 투박하고 어색한 외래어 표기에 근대를 향해 질주하고픈 조선의 몸놀림이 아련하다.

세상 앞에 무릎 꿇길 강요하는 압박한 시기, '어쩔 수 없는 산꾼' 엄홍길은 '8000미터의 희망과 고독'에서 하나의 대상을 향한 맹목적 열정의 힘과 극한 상황에서 자연이 가르치는 무상(無常)의 진리를 소탈한 언어로 들려준다.

조작된 비관과 숫자놀음의 과장에 신음하는 생태 현실을 직시하라는 환경면역서 '회의적 환경주의자'는 격한 시뻐트거리가 됐다. 덴마크 국립환경연

구소장은 위기를 강조하는 정보가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는지, 인류 안녕의 진로를 어떤 쪽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성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게르만 신화, 바그너, 히틀러'는 상상의 영웅사(神話)에서 죽음에 대한 외경과 무아지경의 민족의식(바그너)으로, 다시 제국 건설과 가증스러운 선전 선동(히틀러)으로 이어진 독일사의 유기적 맥락을 짚은 논픽션이다.

상실의 고통에 아파하는 이들과 부대끼며 생·사와 선·악,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삶의 원형을 찾아 유랑하는 열다섯 살 소년의 여정 '해변의 카프카'에서, 하루키는 특유의 심리묘사·문체·속도감·어운을 전개한다.

조선은 망국을 향해 가고 러·일 양강(兩強)이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1905년, 영국 기선에 몸을 싣고 멕시코로 팔려간 한인 이주민의 궤적을 쫓은 김영하의 소설 '검은 꽃'은 이국 땅 노동자들의 '근대 학습' 장면을 복원하고, 역경 앞에 선 인간 존재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박영석기자 yspark@chosun.com

이 책은 꼭... 30자 서평



● **노아의 위투**
필리프 릴리엥 지음, 홍준기 옮김, 한길사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읽는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세 가지 아버지론."
김상환·서울대 철학과 교수



● **자연의 유일한 실수, 남자**
스티브 존스 지음, 이충호 옮김, 예지
"배우자를 수태시키는 것 이외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박병철·대진대 초빙교수



● **소유나 존재나**
에리히 프롬 지음, 최혁순 옮김, 범우사
"시대는 변해도 질문은 변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소유의 양식인가, 존재의 양식인가?"
권지예·소설가



● **영화란 무엇인가**
토마스 소백 지음, 주창규 등 옮김, 거름
"영화는 누구나 자신있게 감상 소감을 말할 수 있어야 좋다. 거기에 지적 윤희를 더해 줄 책."
이주현·학교교육연구원

● 2003 베스트셀러 (교보문고)

순위	제목	출판사
1	나무	열린책들
2	홀스투이 단편선	인디북
3	피페포프 메모리	홍익출판사
4	아침조 편지	도솔
5	화	명진출판
6	한국의 부자들	위즈덤하우스
7	실학의 심리학	21세기북스
8	지상의 순가락 하나	실천문학사
9	내 생애의 아이들	현대문학
10	청천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21세기북스

● 일반 전국 일반서점 베스트셀러 (종합, 12월25일 집계)

순위	제목	출판사
1	바보의 벽	新潮社
2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잊었다	小学館
3	비스트로SMAP레시미 7	후지TV출판
4	방황하는 제국, 로마의 이야기 12	新潮社
5	바티스타드 사마르칸드의 비변	理論社
6	해법집대성과 수수께끼의 마법소녀	포프리社
7	아로하로 다카하시 아이 사진집	키즈아트
8	모범적 인간	中央公論新書
9	행복의 힌트	행복의 과학출판
10	누군가	實業之日本社

'2003 일본 최대 베스트셀러 250만부 판매'

바보의 벽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통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 왜 우리는 서로 많이 통하지 않나?
- 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하는가?
- 미국과 이슬람, 상사와 부하, 부모와 자녀간 소통의 단절은 무엇 때문인가?

뇌 전문가인 전 도쿄대 교수 요로 다케시가 내놓는 상상을 초월한 해답

- 일본에서 유행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이 책의 내용은 현대인의 70%가 바보의 벽에 가로막혀 벽 밖의 세상은 보려 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어디 가나 이 바보의 벽을 옮기고 있다. - 홍인일
-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길러왔던 신념과 가치들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 손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바보의 벽을 뛰어 넘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변화할 수 있다는 저자의 넘카로운 지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즉 바보의 뇌리를 여지없이 강타하고 있다. - 최인호, 소설가
- 바보의 벽은 일본 독서계의 캄오 수 없는 가벽을 무너뜨린 멋진 책이다. - 전여록, 방송인
- 누구나 읽어 보아야 할 쉽고, 유패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 유종호, 문학평론가